

도덕적 행위 양식으로서 듀이적인 극적 시연의 기능에 관한 연구

홍 경 남*

주제분류 철학, 윤리학

주요어 존 듀이, 극적 시연, 도덕적 숙고, 비판적 사고, 도덕적 행위, 감정

요약문

듀이적 극적 시연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과정의 특이점을 고찰하며, 사고 일반에서 그것이 갖는 의의를 검토할 것이다. 듀이는 도덕적인 선택이나 결단에 이르는 실천적인 사고 일반을 ‘도덕적 숙고’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런 숙고가 다만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성’과 같은 내적 사고가 아니라 일종의 행위(행위 양식)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택으로 이어져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사고의 대상이나 내용이 사고하는 자 본인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끼쳐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듀이는 이런 도덕적 숙고를 가능한 행위 경로들을 상상으로 미리 걸어본다는 의미에서 ‘극적 시연’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세계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그 모두를 변모시킬 수 있는 행위에 준하는 의미의 사고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기존의 사고 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듀이적 극적 시연이 교육적, 학문 이론적, 실천적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탐문한다.

*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1. 들어가는 말

‘글쓰기’, ‘말하기’, ‘생각하기’의 기술과 능력은 학문 연구와 삶의 활동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능력 함양을 위해서 대학에서는 그 형식적 특성 일반을 따로 떼어서 직접 가르치거나 전공 교육과 관련된 주제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방식 등이 흔히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생각하기’ 능력에 있어서는 그 교육의 효과가 분명치 않거나 상당히 미흡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교육자나 학습자 모두에게 공공연히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미흡한 사고 교육의 효과에 주목하면서 독립적인 교과를 통한 일반적인 사고 교육은 결코 실질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주제나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사고 훈련은 공허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전공 교과 등을 통한 주제 중심의 사고 교육을 주장한다. 하지만 주제 중심의 전공 교육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함양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원리나 구체적인 요건과 관련해서는 실제 전공 교육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고 교육이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학의 전공 교과에서 그런 교육을 널리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그런 시도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사고 교육의 상황과는 별도로 사회적 삶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진지하게 사고할 수 있는 ‘숙고’의 능력 또는 품성은 인간이 갖추어 줄 수도 있는 하나의 소양을 넘어서, 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도덕적 소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삶이 큰 규모

로 변하고 있다면 도덕의 문제 또한 변할 수밖에 없다. 즉 다만 기존의 관습이나 규칙에 따르거나 그 적용 방식을 찾는 일은 도덕의 작은 부분으로 머물 것이고, 심층적인 사고를 통하여 다변화된 상황적 요인들을 잘 파악하고 인간 삶을 그에 맞춰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한 도덕적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자신과 세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시도는 그것이 비록 사색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그 자체가 바로 일종의 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깊이 사고하는 도덕적 숙고의 습관이나 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그 하나의 길로서 도덕적 행위 양식으로서 듀이적인 ‘숙고’가 갖는 특성에 주목해보기로 한다. 듀이는 일단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도덕적인 선택이나 결단이 필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실천적인 사고 일반을 ‘도덕적 숙고’라고 칭한다. 그에게서 도덕은 포괄적인 생각을 요하면서 인간 자신이 연루되는 선택이나 행위 일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도덕적 숙고를 다만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성’과 같은 내적 사고가 아니라 일종의 행위(행위 양식)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택으로 이어져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고의 대상이나 내용이 사고하는 자 본인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가능한 길을 상상으로 걸어보는 것 자체도 그에게 중요한 삶의 의미를 전해줄 것이다. 상상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사물들도 현실에서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자신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그런 길을 걸었을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져다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도 더욱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계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그 모두를 변모시킬 수 있는 행위에 준하는 의미의 사고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기존의 사고 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거나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와 연결되지 않는 사고는 공중누각처럼 무기력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감정이 결여된 사고 또한 그런 무기력함의 요인을 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형식적인 사고 교육에서 다만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계산적임을 추구하는 사고는 감정이 지니는 애매모호함을 제거하기 위해 가능한 그런 요소를 배제하려고 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색의 결과는 본인에게 즉각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실제적인 엄중한 삶의 문제에서 어떤 선택지를 사고하든 그 결과는 강한 감정적 색채를 가지고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듀이는 이런 가능한 방식에 대한 사유를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칭하지 않고 상상적이라고 칭한다. 그가 보기에 이성언어는 어떤 실제적 능력이 아니라 다만 여러 관련된 감정들이 조화되는 결과적 상태를 칭할 뿐이다. 그리고 듀이는 이런 상상적인 활동을 다소 은유적으로 ‘극적 시연’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여 명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듀이적 극적 시연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과정의 특이점을 고찰하며, 사고 일반에서 그것이 갖는 의의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극적 시연이 기존의 사고 교육에 자리한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지, 교육적, 학문 이론적, 실천적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도덕적 숙고 과정으로서 극적 시연의 의미

일반적으로 사고 과정이라고 하면 흔히 논증적이거나 합리적인 의미의 추론 과정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합당한 이유나 증거들에 의해 어떤 주장(제안, 아이디어, 가설)을 정당화하거나 입증하는 과정이다. 해당 주

장이 도덕적 결단이나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일 경우, 우리는 이를 도덕적 추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추론에서 제시되는 이유는 사실과 관련된 것을 넘어서 통상 도덕 원리나 규칙,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것들이 등장한다. 또한 가능한 반대를 고려하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을 것이기에 해당 주장을 옹호하는 이유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유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정당화의 기초는 찬반의 다양한 이유들을 어림하여 저울질할 경우 찬성의 비중이 반대의 그것보다 더 크기에 해당 주장은 옹호된다는 취지의 것이다.

듀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서 반성적 사고 일반이 갖는 국면이나 측면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는데,¹⁾ 제안들의 도출, 문제(상황)의 명료화, 제안을 아이디어나 가설로 발전시키기, 아이디어나 가설이 갖는 함축내용 추론하기, 아이디어나 가설 시험하기가 그에 해당한다. 여기서 네 번째 측면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나 가설이 갖는 함축내용 추론하기’가 바로 앞서 언급한 합리적 추론 과정에 해당할 것이다. 즉 듀이가 바라본 ‘반성’이나 ‘성찰’은 합리적 추론을 포함하여 아이디어나 가설을 도출하고 그 함축내용을 추론하여 시험하는 일반적인 생각의 과정 전반을 일컫는 것이다.

듀이가 보기에 이런 반성적 사고를 도덕적인 가치평가가 담겨있는 인간 삶의 실천적인 문제에 적용한다면 바로 도덕적 숙고가 된다. 듀이는 『윤리학』의 한 장에서²⁾ 도덕적 판단과 지식 일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일단 즉각적인 가치 판단의 한계를 지적하고 바로 도덕적 가치평가와 관련한 숙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감각적 반응은 숙고적이고 반성적인 가치평가들에서 비로소 보완되고 확

1) John Dewey, *How We Think, The Later Works*, Vol. 8, 1933, the Board of Trustees, 1986, 200쪽.

2) John Dewey, “Moral Judgment and Knowledge,” *Ethics, The Later Works*, Vol. 7, 1932, the Board of Trustees, 1985, 262-284쪽.

장될 수 있다. 어떤 행위든 하나의 행위는 폭넓은 함축내용들을 지니는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려 깊은 반성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이런 반성은 지속되어야만 한다. 지속적인 반성이 없다면 자신이 알거나 다수가 선호하는 제한된 목적들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파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다른 부류의 가치 평가적 숙고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도덕적 숙고의 차이를 자아에 변화를 낳느냐 여부에서 찾는다. 도덕적 숙고에는 일단 개인들의 의심, 주저함, 마음을 정하고 결정적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 등이 따른다. 결국 이는 개인들이 갖는 상당히 차별적인 종류의 성격과 성향이 도덕적 숙고에 연루된다는 뜻이다. 공리주의적인 계산에 준하는 숙고는 개인들의 행위를 평가하는 데서 개인들이 얻을 수 있는 외적인 것들이 얼마인지에 주목하지만, 본연적인 도덕적 숙고는 개인들 자신이 갖는 (자아의) 본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한다. 즉 도덕적 숙고는 행위를 통하여 자아가 갖고 있는 품성이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듀이에게 도덕적 숙고는 일종의 능동적 행위가 되고, 추론적 요소를 담고 있으면서도 어떤 선택지이든 해당하는 상황으로 접어들 때 도덕적 행위자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요소들(비명제적인 요소인 세계에 대한 시각과 태도, 연루되는 사람들의 감정들과 같은 것들)을 가능한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는 이를 드라마 리허설의 은유를 동원하여 이렇게 표현한다. “숙고는 다양한 경로의 행위에 관한 상상 리허설이다.”³⁾

1) 듀이에서 도덕적 숙고와 극적 시연 개념의 전개 과정

듀이가 말하는 도덕적 숙고의 의미를 보다 세부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그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 저작인 『윤리 연구: 강의 요목』의

3) John Dewey, 앞의 책(1932), 275쪽.

논의부터 살펴본다. 그는 우선 충동을 제어하고 윤리적인 목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숙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서술한다.

자연적인 만족인 원래의 충동이 홀로 남았다면 선택할 경로에 관한 사고는 합리적이거나 조정된 만족과 마음속에서 싸운다. 아니면 다양하게 제안된 목적들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어떤 것을 배제시키거나, 그 상충하는 의도들을 갖는 주장들을 조정할 훨씬 더 포괄적인 목표를 발견하거나 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숙고’에 이른다. 이는 더 의식적으로 가치들을 어렵하고 저울질하는 심층적 사고이다.⁴⁾

의식적으로 가치들을 어렵하고 저울질하는 사고를 숙고라고 규정한다. 이는 점에서 듀이의 숙고 개념은 앞서의 합리적 추론 개념과 잘 어울린다. 다만 듀이는 바로 뒤이어 이런 과정이 내성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이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마치 그것이 차갑게 지적인 것인 바처럼 기술하기 쉽다. 사실상 그것은 잠정적인 행위 과정이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목적들을 ‘시도’하고 우리 자신이 실제로 그것들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실제로 그것들을 행함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가장 행위로 들어간다.⁵⁾

즉 여기서 듀이는 도덕적 숙고를 다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들을 서로 비교 평가하는 순수한 계산이나 추리 과정이 아니라, ‘상상’을 동원하여 스스로 하나의 가능성 내지는 목적이 지시하는 과정에 서보는 일종의 정신적 행위로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 소위 합리적 추

4) John Dewey, *The Study of Ethics: A Syllabus*, 1894, Ann Arbor, Mich., 1897, 28-29쪽.

5) John Dewey, 앞의 책(1894), 29쪽.

론 과정과 다른 점은 해당 과정과 연루되는 사람들, 대상들, 사건들의 관계 및 의미, 그와 관련한 감정들이 크게 문제시된다는 점이다.

1900-1901년의 『윤리학 강연』에서 듀이는 숙고를 결과보다는 과정의 관점에서 정의하며 그것이 일종의 행위임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다.

숙고란 무엇인가? 숙고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만약 다소간에 통례적인 심리적 진술을 접한다면, 당신은 찬성을 한쪽에 두고 반대를 다른 쪽에 두어 저울질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숙고는 그런 헤아림과 저울질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숙고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심리적인 용어로 서술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결과에 의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숙고의 과정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다. 그것은 행위의 시도이다.⁶⁾

이어서 듀이는 사람들이 숙고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네 가지로 서술하고 있다. 대화하기, 결과 그려보기, 스스로 행한다고 생각하기, 행한 일에 대한 타인의 평가 구하기가 그것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시도할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 우리가 택하게 되는 방식들일 것이다. 예컨대 내가 하려는 일이 주위에 환경적 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고 가정해보자. 나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선 혼자서 또는 누군가와 의논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경우 (자신과 타인 및 주변 환경에) 빚어질 결과에 대해 고민하거나, 내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한다고 상상하면서 그 행위 경로를 그려보고 그 과정에서 생겨날 타인의 반응이나 평가 등을 고려할 것이다.

듀이는 1908년 발표된 『윤리학』에 이르러서는 이런 숙고 과정을 ‘극적 시연’이라고 칭하면서 인간의 도덕적 삶에서 일어나는 그 상상적 행위의 과정과 효과에 대해 본격적으로 서술한다.

6) John Dewey, *Lectures on Ethics, 1900-1901*, the Board of Trustees, 1991, 244-245쪽.

숙고는 사실상 다양한 행위 경로들의 상상적 시연이다. 우리는 마음으로 어떤 충동에 길을 내주고,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시도한다. 다양한 단계들을 거치는 그 이력을 따라 우리는 상상 속에서 뒤따를 결과들의 존재와 마주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런 결과들을 좋아하고 승인하거나 싫어하고 거절할 때, 우리는 원래의 충동이나 계획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평가한다. 숙고는 수학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따라서 그것 안에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을 갖는다. 공공연한 시도에 앞서서 정신적 시도의 이점은 그것이 복원될 수 있다는 점이다.⁷⁾

이후 극적 시연으로서 도덕적 숙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서술은 1922년에 발표한 『인간 본성과 행위』의 3부 3장(「숙고의 본성」)과 4장(「숙고와 계산」)에서 이뤄졌다.⁸⁾ 「숙고의 본성」에서는 숙고를 극적 시연으로 규정하는 이유, 극적 시연에서 이뤄지는 세부적인 과정, 실제 행위와 극적 시연의 유사성, 극적 시연을 통한 합리적 선택의 요건, 극적 시연에서 감정의 역할 등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뤄지고, 「숙고와 계산」에서는 도덕적 숙고로서 극적 시연이 공리주의적 계산과 어떻게 다른지를 차별화하여 서술하고 있다. 듀이가 규정하는 ‘극적 시연’의 세부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해당 은유가 도덕적 숙고 과정이 일종의 행위 양식이라는 듀이적 시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주요 특징만을 짚어보기로 한다.

일단 듀이의 극적 시연에 관한 총괄적 논의를 펼치는 페스마이어(Steven Fesmire)는 이런 은유가 실제 드라마 과정의 총연습인 드레스 리허설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⁹⁾ 총연습은 정해진 각

7) John Dewey, *Ethics, The Middle Works*, Vol. 5, 1908, the Southern Illinois Univ. Press, 1978, 293쪽.

8) John Dewey, *Human Nature and Conduct*, 1922, The Modern Library, 1930, 189-209쪽.

9) Steven Fesmire, “Dramatic Rehearsal,” *John Dewey and Moral Imagination*, Indiana Univ. Press, 2003, 69-91쪽.

본 및 동선에 따라 배우들이 서로 합을 맞춰보는 것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도덕적 숙고로서 극적 시연에는 정해진 각본이 없기에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도덕적 숙고는 듀이에게서 다만 규칙성이나 안정성이라고는 없는 즉흥적인 드라마 연기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도덕적 숙고는 충동적 습관이 가로막히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상황에 맞게 변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이런 습관은 되풀이되는 행위를 낳는 성향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을 갖고 있다. 다만 듀이에서 습관은 ‘되풀이’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환경에의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듯이 환경은 인간을 변화시킨다. 환경에 의거한 인간의 변화가 습관으로 체현되는 것이다. 습관은 일단 안정되게 어떤 행위를 기대하게 만들기에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예측으로 인해 기존의 습관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끈다는 판단은 습관을 변화시킬 필요를 낳을 것이다. 즉 습관은 안정성을 담으면서도 유연성과 가소성을 품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성향들이 극적 시연을 통하여 융합되는 인간의 소질들이다.

듀이가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극적 시연은 드라마와 리허설로 이뤄진다. 우선 드라마의 핵심은 서사 즉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시간적 계기를 담고 있으며, 다양한 성격의 등장인물들, 그들이 교묘하게 얹혀 있는 사건들, 상황마다 계속하여 변화하는 술한 감정들이 그 이야기를 이루면서 나타난다. 그 세부는 상세할 수도 허술할 수도 있다. 또한 산만하면서도 별 변화가 없는 잔잔한 일상이 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일상과는 다른 극심한 변화나 일어날 법하지 않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시연은 직접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리 행위 내지는 연습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듀이는 이 ‘시연’의 성격을 가리키기 위해서 ‘복원할 수 있다’, ‘되찾을 수 있다’, ‘잠정적이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현대의 드라마 리허설을 보면, 감독의 아이디어와 그에 조응하는

배우들의 아이디어가 주요하게 드라마 리허설을 이끄는 기능을 한다. 듀이는 극적 시연을 이끄는 주요 요소로서 제안, 목적, 의도 등을 언급하는데, 이는 드라마를 인도하는 감독이나 극작가 또는 배우의 아이디어와 기능상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보인다. 극적 시연은 대리적이긴 하지만 일종의 행위나 행동이기에 그것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정서적 요인이 중요시된다. 이런 정서적 요인은 드라마를 극적이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가 기쁨과 슬픔 등을 담고 있지 않다면 누구든 그것을 볼 이유가 없다.

2) 극적 시연과 행위 계획 또는 목적의 교정

듀이에서 도덕적 숙고 과정이 갖는 핵심은 그것이 기존에 우리가 반영 없이 세우는 목적을 반성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도덕이론들은 통상 도덕의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거나 그것에 도달하는 수단을 찾곤 하였다. 예컨대 공리주의에서는 우선적으로 최대의 쾌락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이에 쾌락은 크게 하고 고통은 적게 하는 방안이나 길을 찾아내면 도덕의 일은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듀이가 보기에 도덕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반성적이지 않은 목적 설정은 흔히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해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는 도덕적 품성이 높고 지혜롭다고 칭송받는 사람이라도, 신중할수록 반성적이지 않은 목적은 일단 유보하는 면모를 보이곤 한다. 결국 듀이가 보기에 도덕적 숙고는 어떤 목적을 바로 설정하고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장 바람직하거나 포괄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를 통합할 수 있는 목적을 찾는 것이다. 이는 외적인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궁리하는 태도와 잘 어울린다.

한편 인간 삶의 연속성에 걸맞게 극적 시연은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완성되는 것일 뿐이고, 상황이 변하면 늘 다시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 자체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것에 머무르려는 성향에 따라 한번 목적이나 목표가 세워지고 나면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기에, 극적 시연에 따른 목적의 변경은 상당한 곤란이 따르는 길일 수 있다. 듀이는 또한 이렇게 편안함보다는 곤란이 삶에 의미를 던져준다는 의미에서 해당 과정에다 ‘극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기도 할 것이다.

3) 숙고와 심의

극적 시연으로서 숙고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고에 불과한 것이기에 유아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공동체 내지는 사회적 삶에 기여할 수 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숙고의 핵심인 사고 내지는 반성을 오로지 그 사고자의 정신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내성적인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이런 비판을 야기한다. 하지만 실제 행위를 통해서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영향을 주고받듯이, 극적 시연의 과정에서도 관련된 인물과 사물들이 대상들로서 등장하여 상상의 여로에 서 있는 자와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그 상호작용의 내용은 특히 시연자 본인에게 삶의 중요한 의미로서 체현된다.

듀이에게서 행위 내지는 활동은 환경과의 접촉이나 만남을 포함한다. 주변 사람들과 사물들을 동반자로 삼아 전진하거나, 그들 내지는 그것들이 장애나 곤란이 되면서 멈추거나 후퇴하거나 할 것이다. 이렇게 환경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에다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숙고로서 극적 시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도 일종의 행위로서 그 진행 과정에서 여러 대상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듀이에 따르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되는 것은 그 길에서 보거나 상상한 대상들에 의해서이다.¹⁰⁾ 그리고 이

10) John Dewey, 앞의 책(1922), 192쪽.

런 대상들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습관적 활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그것을 강화하거나 억제하거나 달리 인도하거나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상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거나 만족시키거나 방해하거나 하면서 숙고는 진행되고, 그런 만남이 종료될 때 선택이나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극적 시연이 굳이 한 사람 내부에서만 일어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듀이가 1900-01년 강연에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대화의 형태를 띠 수도 있고 조언이나 평가를 구하는 컨설팅의 형태를 띠 수도 있다. 예컨대 스펜서(Albert R. Spencer)는 플라톤의 대화편에 제시된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그 전형적인 사례로서 소개하고 있다.¹¹⁾ 우리는 플라톤의 대화편을 그저 한 철학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서가 아니라 대화에 의한 극적 시연의 과정을 서술하거나 묘사한 것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 문제가 제시되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며 그들과 연루되는 여러 사건들이 벌어진다. 다만 어떤 생각들을 던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이야기가 그려진다. 이는 극적 시연에 의거한 숙고가 복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심도 있는 논의인 심의와 바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개인의 숙고는 다수에 의한 심의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

4) 극적 시연에서 감정의 지위

단순히 어떤 심상이 자리하다가 사라지는 명멸하는 사고가 아니라 깊은 생각으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멈추게 하여 사색으로 이끄는 동기 내지는 유인이 필요하다. 듀이식으로 말하면 습관적인 충동이 실현될 기회가 가로막힘을 느끼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이 그런 것이다. 즉 충동이나 욕망에 따른 감정이나 정서가 숙고를 이끄는 것

11) Albert R. Spencer, "The Dialogues as Dramatic Rehearsal: Plato's Republic and the Moral Accounting Metaphor," *The Pluralist*, Vol. 8, No. 2, 2013, 26-35쪽.

이다. 인간인 이상 욕망이나 충동은 늘 자리할 수밖에 없기에, 합리성은 욕망의 제거가 아니라 욕망의 확장이라고 듀이는 말한다. 이성인 욕망에 앞서는 실체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욕망이 조화를 이루는 결과적 상태를 일컫는다. 듀이는 욕망 등의 감정에 재료적인 역할과 함께 동인의 역할을 부여한다.

도덕적 숙고의 재료는 감각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이 듀이의 출발점이다. 대상 지각이 감각에서 오는 것처럼 타인을 지각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우리는 타인을 감정으로 느낀다. 한갓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면 말이다. 특히 타인에 대한 공감은 우리가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지성적 관점을 제공하기에 중요한 것이라고 듀이는 지적한다.¹²⁾ 이는 드라마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들과의 사이에서 이뤄지는 극적 사건들이 수시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 간에 소통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감정 내지는 정서이다. 내가 또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 또는 어떤 감정적 태도를 취할까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이런 감정의 기능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내가 나태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과 감정 등이 제대로 느껴지면서 그대로 나를 강타할 것이다. 그런 주위의 감정이 얹힌 시선들은 나로 하여금 기존의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모색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할 수도 있다. 즉 감정은 극적 시연의 배경이 되는 문제 상황을 인지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면서, 그 상황을 변경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된다. 이런 감정의 지위를 생각해보면 감정을 가능한 억제시켜야 한다는 전통 윤리의 구도는 분명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함에 틀림없다.

12) John Dewey, 앞의 책(1932), 270쪽.

3. 극적 시연의 국면들

1) 문제 지각

숙고 과정은 문제 상황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는 습관과 충동이 가로막히고 정지하는 순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순간에 장애나 문제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바로 즉각적인 느낌에서 시작된다. 또 그렇다고 하여 그런 감각이 바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더하여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듀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초판에서 숙고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느낌으로 시작되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¹³⁾ 하지만 재판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느낌 단계를 제외하고 문제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숙고의 첫 단계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문제를 느끼고 인식하는 과정이 다만 단선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잘못된 인식 내지는 미숙한 인식이 능히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의 진행은 앞을 향한 움직임만이 아니라, 앞과 뒤를 향한 움직임이 필요한 만큼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듀이 자신도 문제 인식이 문제 해결의 절반일 수 있다는 언급과 더불어 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⁴⁾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습관과 새로운 충동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습관을 이어가거나 충동이 바로 행위로 발현하는 것을 가로막는 유보 상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상충 내지 유보 상태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습관과 충동 간에 조정을 꾀하게 만든다.

철학사 강의를 하는 한 철학 교수의 사례를 들어보자. 보통 그렇듯이 철학자와 그 사상을 나열하는 방식대로 강의를 해오던 그는, 어느 날 문득 교실 전체를 둘러보면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들과 꾸벅꾸벅

13) John Dewey, *How We Think*, 1910, Dover Publications, Inc., 1997, 72-78쪽.

14) John Dewey, 앞의 책(1933), 200-209쪽.

줄면서 하품을 계속하는 학생들을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는 갑자기 교수
 자로서의 자신에 회의를 느낀다. 자신은 교육철학을 강의하면서 학습자들
 을 물건을 담듯이 지식을 담는 빈 그릇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반응
 하는 도덕적 행위자로서 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적도 있음을 기억했다.
 그는 이렇게 자문한다. 이런 방식의 수업이 도대체 학생들 스스로가 철
 학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동안 내가 과연 진정
 조금이라도 학생들을 도덕적 행위자로서 대하기는 했던 것일까? 이런 물
 음에 이어 막상 보다 나은 새로운 교수 방식을 모색하자니 자신의 수업
 방식에 자리한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호하기만 하다. 그래서 그는
 교수법 자료도 뒤져보고 동료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혼자서 이
 리저리 고민도 해보고 하면서 자신이 갖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낸다.
 극적 시연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반성의 결과 일단 다음과 같이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였다. 첫째,
 순전한 과거 사실의 나열에 불과한 강의식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
 하게끔 하는 동기나 자극이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둘째, 과거 철학
 자들의 사상을 완성형으로 나열하는 것은 훌륭한 생각이 마치 미리 정해
 져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그런 생각이 실제 시행착오나 오류가
 가득한 일상적인 인간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오해를 준다. 셋째, 단순히
 타인의 생각을 나열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이 학습자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와 관련한 의미 있는 흥미나 관심을 자아내지 못하게 한다. 이렇
 게 자신이 기존에 고수했던 관습적 교육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
 씩 깨달으면서 잠정적이긴 하지만 해결책일 수도 있는 가능한 길들이 어
 림풋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2) 가능한 행위 구상

숙고 일반이 아니라 극적 시연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도덕적 숙고의 고

유한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에서이다. 도덕적 숙고의 귀결은 행위가기에, 어떤 행위들이 현 상황에서 시도될 수 있는지 구상된다. 여기서 상상력이 요구된다. 단지 주어진 것에 의해서는 기존의 상투적인 습관을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상황마다 새로운 요소가 출현할 수밖에 없기에 그에 조응하는 가능한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도덕적 행위자도 그에게 주어진 것과 상상 가능한 것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가능성들을 점검한다. 다만 여기서 가능한 것들에 대한 구상은 공상이나 환상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단지 마음의 위안이나 유희를 위한 가능성의 구상은 공중누각에 불과한 것이기에 사실적인 것과 조응하는지 실현가능한지 여부가 이런 가능성의 구상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어야 한다.

앞서의 철학 교수는 이 단계에서 일단 상상으로 가능한 새로운 교수 방식들을 구상해볼 것이다. 통상 이런 가능성의 구상은 재료 없이 단지 생각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수법 관련 자료나 동료 교수의 조언이나 과거 경험에서 얻은 배경 지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소크라테스식 교수법을 기억하면서 질문지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주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모색한다. 둘째, 수업 전에 토의 조를 구성하여 강의식 수업은 1/3의 분량만 남기고 나머지 시간에는 해당 수업 내용에서 추출한 주제를 중심으로 토의를 해보는 토의식 수업을 모색한다. 셋째, 단순히 철학자와 그의 사상을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상적 삶에서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철학적 문제를 설정하고 그와 관련한 텍스트를 미리 읽어오게 하여 교실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하여 독서 토론식의 논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 간접적으로 앞선 철학자들의 사상을 주워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그들의 사상과 대면하는 기회를 학습자들에게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3) 가능한 행위에서 일어날 결과 상상하기

가능한 행위를 구상하였다면 이제 그런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고 나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듀이는 인간과 세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인간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 영향으로 인해 변화되는 세계도 인간에 영향을 끼친다. 즉 자신의 행위로 인해 그 행위자 자신이 변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상상하는 과정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자신을 상상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¹⁵⁾ 듀이는 이렇게 행위 결과에 주목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공리주의를 언급한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시각은 공리주의자와 큰 차이를 보인다. 공리주의자에게 행위 결과는 결국 쾌락과 고통의 총량으로 수렴된다. 즉 그 행위로 인해 얻어지는 감각이 기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듀이가 보기에 이런 의미의 쾌고는 한 행위가 낳는 결과가 갖는 극히 미소한 부분일 뿐이다.

공리주의에서 모든 결과는 양화되어 쾌고로 대변되는 그 특질이 기계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고 간주되는데, 교육의 평가에서도 이런 관점에서는 시도들이 흔하게 발견된다. 특히 부스트럼(Robert Boostrom)은 『민주주의와 교육』의 특이한 지위,¹⁶⁾에서 듀이 시대의 교육 체계와 현대의 그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현대에서 교육의 결과를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특질의 비교로 보는 경향이 한층 짙어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듀이가 보기에 이런 방식의 평가는 현재를 다만 미래를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 양화하기 어려운 감정적인 것을 결과에서 아예 배제하는 경향을 낳는다. 그리고 이는 현재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현재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잠재성과 가능성들이 발견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린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태도에서도 공감은 별 의미를 갖지 못

15) John Dewey, 앞의 책(1922), 204-205쪽.

16) Robert Boostrom, “The peculiar status of *Democracy and Educatio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48, No. 1, 2016, 4-22쪽.

하기에 타인을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동료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는 자기편의 이득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게 되어 진정한 공동체의 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앞서 제시한 교수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 교수는 자신이 구상한 세 가지 길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상상적인 결과 판정에 들어간다. 질문을 미리 준비하여 틈틈이 던지는 방식은 학습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강의에 집중하게 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되지만, 소수만이 답변을 위해 궁리할 것이고 이런 궁리가 깊은 사색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무신경한 답변이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교수자가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도 드물지 않을 것이다. 토의식 수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본인이 그런 방식의 수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거의 없기에, 기존의 교수법 자료와 경험자의 조언에 많이 의지하게 될 것이다. 토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만 학습자들이 얕은 경험이나 의견을 나누는 환담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토의 과정에서 교수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또한 토의 주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너무 가벼운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주제 중심의 텍스트 읽기에 기초한 독서토론 논의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철학 텍스트의 난해성, 다소 긴 종이책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깊은 독서보다는 짧고 쉬운 전자책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가벼운 독서만을 경험해온 학생들의 상황, 진지한 논의를 싫어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모두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사항들을 어느 정도라도 반영할 수 있는 준비가 없다면 이 방식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여러 결과적인 사안들이 그 교수가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면서 비교하고 평가해야 할 것들이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많겠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먼저 떠올리는 것은 그만큼 더 온당한 결단이나 선택을 위해서이다.

4) 결과들의 비교 평가

가능한 행위 결과들을 비교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척도는 무엇일까? 저울질의 비유처럼 저울의 양쪽에 비교 대상들을 올려놓고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또는 저울의 한쪽에는 표준 무게의 분동을 올려놓고 다른 쪽에 측정해야 할 대상을 올려놓아 균형을 맞춰 무게를 재는 방법은, 그 대상들의 가치가 양적 단위로 고정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행위 문제의 복잡성, 문제 상황이 던져주는 질적인 성격, 관련 인물들과 대상들이 반응하는 양상의 다양성을 고려해본다면 이런 단순한 방법은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결국 공리주의자의 양적 방법은 문제가 지닌 한 측면을 아주 단순화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숙고에서 일어나는 행위 결과들의 비교평가 과정에다 특히 ‘수렴 추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한 웰만(Carl Wellman)은 그 평가 과정에 자리한 복잡성을 다른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수렴 추론이라는 말 자체도 ‘심지어는 반대사유들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들이 모여들어 어떤 아이디어로 이끄는 추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일단 천칭 저울의 양쪽 접시에다 찬반 사유를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식의 비유를 거절한다. 이런 방식은 수렴 추론의 복잡성을 담아내지 못한다. 다음으로 그는 자갈 더미를 양편에 놓고 하나씩 손으로 들어 어렵히는 방식으로 양쪽을 비교하는 방식인 ‘손으로 들어 어렵하기’라는 비유를 채택했다가,¹⁷⁾ 그마저도 해당 과정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거절한다. 결국 그는 인간의 합리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가 보기에 끝없는 합리적 숙고(이유들에 의거한 추론)의 과정이야말로 결국 인간을 보다 합당한 판단이나 선택으로 인도할 것이다.¹⁸⁾

17) Carl Wellman, *Challenge and Response*, Southern Illinois Univ. Press, 1971, 57-58쪽.

듀이는 이런 복잡성을 인식하는 데서 적어도 웰만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웰만이 평가의 초점을 원리상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명제적으로 표현 가능한) 이유들의 저울질에 두었던 것과는 달리 듀이는 해당 평가 상황이 갖는 질적 요소(특히 연루된 인물들의 감정적 요인들처럼 비명제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에도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런 요소들은 인식되기보다는 그저 느껴지는 것들이다. 물론 그런 느낌도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반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능한 행위 결과들에 대한 평가에서 감정적 요소들이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헤아려진다는 점이다.

듀이가 도덕적 숙고에다 ‘극적 시연’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특히 바로 이 점에서이다. ‘극적’은 도덕적 문제 상황이 갖는 맥락 의존적인 복잡성과 다변성을 가리키고 ‘시연’은 여러 다양성을 품어낼 수 있는 그 ‘복원 가능성’을 가리킨다. 극적 시연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대안들에다 시연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것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대안으로 만든다. 듀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많은 시도들이 정신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뤄져 다양한 계획들의 시행을 상상하게 되기에, 이는 처음에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많은 충동들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¹⁹⁾ 이처럼 수많은 가능성들에 삶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진정한 도덕적 자유의 가치를 향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주의와 교육』에서 공언했던 성장, 유연성, 가소성 등²⁰⁾이 모두 이런 광경에 겹쳐 들어온다.

5) 도덕적 선택 내지는 결단

극적 시연의 결과 이뤄지는 판단은 선택이나 결단과 이어지며 완성에

18) Carl Wellman, *Morals and Ethics*, Prentice Hall, 1975, 305-306쪽.

19) John Dewey, 앞의 책(1932), 275쪽.

20) John Dewey, “Education as Growth,” *Democracy and Education*, 1916, The Free Press, 1944, 41-53쪽.

이른다. 이런 극적 시연의 완성 과정은 듀이가 말하는 ‘하나의 경험’²¹⁾과 일맥상통한다. 하나의 이야기가 극적 시연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물론 이 완성 단계에서의 결과가 모든 충동을 통합하는 가치를 지닌다거나 다른 방식의 선택에 비해 현실적으로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경험을 보다 의미 있게 하여 인간을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상상의 길 위에 더 이상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결단이나 선택으로 나아갈 것이다. 물론 이때까지도 우리는 마치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판단중지를 선언하는 데카르트처럼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게 아무런 선호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이상 항상 어딘가로 향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상충되는 선호들이 자리하고 있는 데서 그런 여럿을 통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선호를 발견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 극적 시연에서 상상의 끝은 바로 이런 때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끝에서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합당할 수도 있지만 합당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 어떤 대상이나 목적이 상상 속에 지나치게 크고 압도적인 것으로 등장하면서 다른 가능성에 대한 시각을 모두 막아버릴 수도 있다. 합당한 결단은 적어도 관련된 여러 상황적 요소들을 잘 조화하고 통합하며 상충하는 욕구들을 포함한 서로 다른 경쟁적 경향들을 잘 조율하는 숙고 과정의 산물일 뿐이다. 결국 욕망을 버리고 이성만을 찾는 데서 합리성이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욕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데서 이성적인 합리성이 자라나는 것이다.²²⁾

21) John Dewey, "Having an Experience," *Art as Experience*, 1934, Perigee, 2005, 36-59쪽. 듀이는 경험내용들이 일정한 진행과정을 거쳐 원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경우, 경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과적으로 통일된 전체를 이루기에 이를 그렇지 못한 단편적인 경험과 비교하여 ‘하나의 경험’이라고 칭하고 있다.

극적 시연에 의한 선택은 그렇지 않은 선택에 비해 풍부한 의미를 갖고 다가오기에 삶이라는 범위를 내적으로 구성하는 일부가 된다. 이제 행위자는 보다 더 세밀하게 짜인 바탕 위에서 새로운 경험을 기다릴 것이다. 즉 앞선 선택을 구성했던 경험적 요소들은 이제 그가 새로운 경험을 맞이하는 데 쓰일 도구 내지는 재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극적 시연에 의거한 도덕적 숙고는 교육이 그리는 목표와 그 지향에서 그 무엇보다 더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육 또한 인간 경험의 성장을 그리고 있고, 교육 과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자 도구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4. 극적 시연의 응용 사례

1) 교육의 학습 활동

교과 과정에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들이 학교를 떠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를 형성해 준다.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전개해나가는 일은 그냥 마구 잡이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절차의 성격은 엄밀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열린 것이지만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핵심 요소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의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논리나 논증 중심의 사고 교육이 일반적으로 이뤄져왔고, 듀이가 정식화한 반성적 사고의 국면들은 이런 교육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해왔다. 특히 도덕적 문제와 관련한 숙고 과정을 은유화한 듀이의 극적 시연은 직관과 반성, 이성과 감정이 총체적으로 뒤섞인 사고 과정을 일컫는 것이기에 비판적 사고 교육의 심화된 모형일 수 있다. 그리고 극적 시연은 단지 반성에

22) John Dewey, 앞의 책(1922), 193-195쪽.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이어지는 일종의 행위 양식이기에, 이를 통하여 비판적 사고 교육이 수동적인 내성 등의 발달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고 활동을 키워 그 자체 인간 성장을 이루는 요인으로 자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예컨대 극적 시연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는 반성적 학습 활동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시절에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 그 목표나 방향을 정하는 일은 적어도 자기 성장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속한다. 우선 왜 그런 일이 중요하고 절실한 일일 수 있는지 문제 인식이 시도될 것이다. 그런 고민 없이 삶을 살아가다 뒤늦은 후회를 하는 이들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꿈이나 희망을 물으면 으레 앞으로 자신이 가지게 될 직업에 대해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는 사회 또는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심정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소유적인 의식이 짙게 자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교육이 다만 사회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이끄는 힘을 갖기도 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자가 갖는 중요한 도덕적 책무 중 하나일 듯싶다. 일단 문제의 초점을 바꿔볼 수 있을 것이다. 장래에 뭐가 되고 싶은가라는 물음 대신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길 바라고 어떤 삶을 살았으면 하는지 물어보자.

이제 학생들은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회고하고 지금의 삶을 직시하며 그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바랐던 일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이야기로 읽은 것이든 실제 경험이든 누군가에서 들은 것이든 가능한 삶의 모습들을 떠올려보고 자신의 삶과 맺는 관련성을 짚어보게 될 것이다. 다른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한 탐색도 가능할 것이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제안한 삶에 대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길 바라는지에 대한 답변이 짧은 숙고를 거쳐 바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다 진솔한 답변을 얻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은 바로 이런 오랜 숙고의 과정을 위

한 점화 장치와도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한번 이루어진 극적 시연은 하나의 이미지로 경험 속에 남아 있으면서 삶의 도정에서 지속적으로 그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변화해나갈 것이다.

당장은 딱히 만족스런 답변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는 물음을 묵혀두면서 부화시키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굳이 꿈꾸려 애쓰지 않아도 자신이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다보면 꿈이 먼저 알아서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꿈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꿈은 무의식적으로라도 항상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단 극적 시연의 과정에서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그 과정이 어느 하나의 가능성에 압도되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과정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할 것이고 다시 온전하게 되풀이될 수도 없다. 하나의 경험 내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시도한다고 해도 늘 완속하지 않은 가벼운 경험에 그칠 뿐이고 삶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게 된다.

2) 학문 이론의 정립

센(Amartya Kumar Sen)은 기존의 경제학 이론이 공리주의적 시각에 기초한 다소 단선적인 의미의 인간 발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역량의 함양에 기초한 총체적인 의미의 인간 발전을 주장한다. 센이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기존 학문 이론에서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여 자신의 이론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은 역시 듀이가 서술한 극적 시연의 한 예로서 간주할 수 있다.

센은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학자로서 자신의 인생에 큰 충격을 주었던 어린 시절의 목격담을 이야기한다.²³⁾ 한 노동자가 큰 상처를 입고 자

23)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김원기 역, 갈라파고스, 2013, 46-47쪽.

신의 집으로 도피했다가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는 이슬람교도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두렵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적대적인 힌두교인 마을에 일하러 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었다. 센은 그 노동자의 죽음의 생계의 부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느꼈다. 생계의 부자유가 무능력을 낳고 죽음(다른 형태의 부자유)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는 이 사례가 ‘자유’를 능력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동기를 제공해주었다고 술회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는 도덕적 문제 중 가장 기본적인 ‘자유’ 문제와 관련하여 센으로 하여금 극적 시연에 접어들게 추동시킨 문제 상황이다. 우리는 잘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장애나 문제와 맞닥뜨리는 데서 비로소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된다.

센이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접하게 된 기존의 권위적인 이론은 인간의 발전을 GNP의 성장이나 개인 소득의 증대, 산업화, 기술적 진보, 사회 근대화 등에서 찾았다. 센은 자유시장 정책과 반시장적인 정책이 각기 또는 통합적으로 실제 인도의 빈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였다. 인도의 케달라는 시장 경제를 통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초교육, 보건, 평등한 토지 분배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주에 비해서 빠르게 빈곤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보였다.²⁴⁾ 물론 자유시장 정책을 펼쳤던 다른 주의 빈곤도 감소 현상을 보인 것을 관찰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가 합리적으로 분배되는 조건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런 조건이 어떤 것일 수 있는지 탐문한다. 그리고 그런 균등한 기회의 분배는 학교교육, 보건, 토지개혁 등의 공공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제 이런 깨달음은 기존의 경제학 이론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제 그는 우선 인간 발전의 양상에 주목한다. 기존의 발전 이론이 추

24) 아마티아 센, 앞의 책(2013), 156쪽.

구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이나 욕구 충족 등이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거나 욕구 충족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발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에 주목한다. 행복의 정도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그것에 비추어 어떤 사회적 대우를 받는지에 의존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따라 그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극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는 부유하고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보다 불행을 훨씬 더 쉽게 감수한다는 것이다. 즉 원래 불행했던 이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행복해할 수 있다. 욕구 충족과 관련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절망적일 정도로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무언가를 바랄 용기조차 부족하기에 그들의 목소리는 욕구충족의 크기 면에서 무시되기 십상이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센은 인간 발전의 목적을 인간 삶을 보다 더 잘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인간 발전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실질적인 자유를 확장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실질적 자유란 굶주림과 병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인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구성적이고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다양한 역량을 갖추는 일을 가리킨다.²⁵⁾ 이는 바로 다양한 삶의 양식을 추구할 자유를 의미한다. 예컨대 어쩔 수 없이 굶주리는 것과 스스로 굶주림을 통해 죽음을 택하는 것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만 자유의 역량이 자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와 사회가 개인에게 인간 역량이라는 기성품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⁶⁾

센은 이렇게 인간 발전을 바라보는 상이한 대안적 시각을 자신의 경제이론에 통합하고 그런 이론이 기존의 것보다 인간 삶에서 주어지는 온갖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론 선택이 이뤄지는 것이다. 센의 이론이 특히 전통적인 것과 차별화되는 지점

25) 아마티아 센, 앞의 책(2013), 84쪽, 103쪽.

26) 아마티아 센, 앞의 책(2013), 104쪽.

은 그것이 인간 부분이 아니라 듀이의 시각처럼 인간 전체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이다.

3) 사회적인 삶의 선택/결단

앞서 극적 시연을 연출하는 사람은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고 숙고 과정에 따라 목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감정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숙고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았다. 더욱이 극적 시연의 결과 이뤄지는 결단에 따라 스스로가 변모할 수 있다는 점도 보았다. 맥베아(John F. McVea)는 듀이의 극적 시연이 잘 적용되면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는 사례로서 유누스의 그라민 은행 설립 과정을 인용한다.²⁷⁾

유누스는 미국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고 고국인 방글라데시에 돌아와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다가 심각한 자기 환멸을 느끼게 된다. 길거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자신은 좋은 건물에서 그들의 빈곤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우아한 경제학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자기혐오에 몰아넣은 것이다. 그는 학생들과 함께 가난한 집을 방문하고 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가난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 그들과 함께 가난을 겪고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유누스는 이런 문제 인식을 위한 노력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용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통찰에 이르게 된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해결책을 모색할 때이다. 이제 그는 지역 은행가들을 찾아다니며 가난한

27) John F. McVea, "Constructing Good Decisions in Ethically Charged Situations: The Role of Dramatic Rehearsal," *Journal of Business Ethics*, 70, 2007, 375-390쪽.

사람들에게 소액 융자를 제공하자고 설득하게 되는데 그 반응은 극히 부정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이 제공할 수 없는 담보를 요구하였고 소액 융자를 관리하는 비용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은행가들에게 가난에 대한 합리적 결단이란 그런 문제가 다만 본인의 무능력에서 오는 문제일 뿐이라고 가난한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은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결국 그나마 가난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자선가들에게 호소하는 방안, NGO의 개입을 촉구하는 방안, 정부가 개입하는 방안뿐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유누스는 그동안의 경험과 숙고를 통하여 이런 방안들이 은행가들에게 호소하는 방안만큼이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²⁸⁾ 유누스는 스스로가 은행가의 역할을 맡아 가난한 이들에게 소액 융자를 해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소액융자를 해주는 사업을 위한 그라민 은행이 1983년 설립되었고, 2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세계은행은 그라민 은행의 대출자 중에서 50% 이상이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보고했다.²⁹⁾

유누스가 고국의 가난한 이들을 보며 느낀 격렬한 감정은 기존에 득세하는 합리적 경제 이론 너머를 보게 만들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탐문했고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가난한 이들을 계속 가난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발견했다. 소액 융자를 실현하려고 투자자를 찾으면서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자선가나 정부나 국제기구에 호소하는 방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낸다. 소액 융자가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의 기회들을 상상했고 투자된 돈이 가난한 이들에게 이득으로 돌아오

28) Muhammad Yunus, "Creating a World without Poverty," *Global Urban Development*, Vol. 4, 2008, 1-7쪽.

29) Muhammad Yunus, "The Battle against Poverty: Bangladesh and Beyond," *Creating a World without Poverty*, Public Affairs, 2007, 103-128쪽.

는 가능한 방식을 모색했다.³⁰⁾ 그리고 이런 상상과 모색은 은행이 규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액 용자를 받는 이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다. 유누스는 다만 용자를 내어주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용자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수단에 대해서도 가난한 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유누스의 결단은 가난한 이들만이 아니라 유누스 자신을 변모시켰다. 인간은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가난 따위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신념을 굳건하게 갖게 된 것이다.

5. 결론

합리적이거나 계산적인 이성을 강조하는 숙고 이론에 따르면 숙고는 모든 감정적이고 상황적인 요소를 배제하면서 냉철한 이성에 의해 보편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그런 평가로 이뤄지는 도덕은 누구나가 따라야 하는 당위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듀이적인 숙고 이론에 따르면 모든 도덕적 숙고에는 감정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이 필연적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다. 감정 등이 없다면 그런 의미의 도덕

30) 맥베아는 특히 여성을 위한 용자를 활성화시킨 유누스의 아이디어에 찬탄한다. 휴대폰은 적어도 극도로 가난한 환경에서는 가난을 구제하는 일과 거리가 먼 소재일 수 있다. 그런데 유누스는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처지를 살피다가 특히 시골과 같이 고립된 지역에 있는 이들이 성적 폭력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시골에 사는 이들은 서로 살고 있는 지역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자리나 거래 가능한 물품에 대한 정보가 교환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휴대폰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여 여성을 안전하게 만들고 구직이나 상거래를 위한 중개 역할까지도 하게 만들어 그것 자체가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John F. McVea, 앞의 논문(2007), 383-384쪽.

은 인간의 삶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극적 시연은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시작되며 감정적이고 상황적인 요인들 모두가 고려 및 검토 대상이 된다. 사실적인 것만큼이나 가능한 것들이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등장한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그 평가 과정에서 전진과 후퇴가 반복된다.

연극이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사건들은 아주 평범한 것에서부터 아주 비현실적인 특별한 것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하다. 우리가 통상 ‘극적’ 사건이라고 부를 때 의미하는 바는 쉬이 일어날 법하지 않은 특별한 사건을 이르는 하는데, 듀이의 극적 시연에서 ‘극적’은 이런 의미를 포함하여 상황적 맥락이 갖는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의 문제 상황은 수많은 요소들로 이뤄진다. 통상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마련이며 갈등 요소가 항상 끼어들곤 한다.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야깃거리가 생겨나곤 하는데 이 모두는 등장인물들을 저마다 다른 운명으로 인도하곤 한다. 다양한 선택의 길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적’이기도 하다. 이런 극적 상황은 다만 한 사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극적 상황을 이루는 전체 요인들(등장인물, 사물, 사건, 관계들)이 전면에서 등장하며 그 전체의 조화가 갈등 해결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극적 시연은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성격을 띠면서 ‘도덕적’ 숙고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게 된다. 도덕적 숙고의 결과가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만나는 대상들이 사고하는 자 본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극적 시연 자체가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행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극적 시연의 과정은 특히 교육과 관련된 학습 과정에서 긴요하게 이용될 수 있다. 학생들은 만들어진 인위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연관된 문제들을 교실로 가져와서 그 해결을 향하여 극적 시연의 활

등을 벌이게 된다. 교육자는 이런 과정에서 드라마 리허설의 감독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리허설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설정하면서도 학생들 각자의 아이디어를 소중히 검토하여 조율하는 것이다. 극적 시연은 또한 다만 시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학문 이론이나 실제 삶의 문제 해결에 널리 쓰일 수 있다. 자유로서의 발전을 그린 센의 숙고 과정이나 그라민 은행을 설립하여 가난 또는 인간 일반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한 유누스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도덕적 숙고로서 듀이적 극적 시연은 다만 형식적이거나 방법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행위 양식임을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가 인간 성장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임을 드러내고 있다. 인간은 이런 과정을 통해 시작과 중간과 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경험을 완성하고, 이런 경험들이 거듭되면서 그의 삶을 풍부한 의미로 수놓고 그 찬연한 인생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김원기 역, 갈라파고스, 2013.
- Boostrom, Robert, “The peculiar status of *Democracy and Educatio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48, No. 1, 2016.
- Dewey, John, *The Study of Ethics: A Syllabus*, 1894, Ann Arbor, Mich., 1897.
- _____, *Lectures on Ethics, 1900-1901*, the Board of Trustees, 1991.
- _____, *Ethics, The Middle Works*, Vol. 5, 1908, the Southern Illinois Univ. Press, 1978.
- _____, *How We Think*, 1910, Dover Publications, Inc., 1997.
- _____, *Democracy and Education*, 1916, The Free Press, 1944.
- _____, *Human Nature and Conduct*, 1922, The Modern Library, 1930.
- _____, *Ethics, The Later Works*, Vol. 7, 1932, the Board of Trustees, 1985.
- _____, *How We Think, The Later Works*, Vol. 8, 1933, the Board of Trustees, 1986.
- _____, *Art as Experience*, 1934, Perigee, 2005.
- Fesmire, Steven, *John Dewey and Moral Imagination*, Indiana Univ. Press, 2003.
- McVea, John F., “Constructing Good Decisions in Ethically Charged Situations: The Role of Dramatic Rehearsal,” *Journal of Business Ethics*, 70, 2007.
- Spencer, Albert R., “The Dialogues as Dramatic Rehearsal: Plato’s Republic and the Moral Accounting Metaphor,” *The Pluralist*, Vol. 8, No. 2, 2013.
- Wellman, Carl, *Challenge and Response*, Southern Illinois Univ. Press,

1971.

_____, *Morals and Ethics*, Prentice Hall, 1975.

Yunus, Muhammad, “The Battle against Poverty: Bangladesh and Beyond,”
Creating a World without Poverty, Public Affairs, 2007.

_____, “Creating a World without Poverty,” *Global Urban Development*,
Vol. 4, 2008.

Study on the function of deweyan dramatic rehearsal as a way of moral conduct

Hong, Kyung Nam (Chung-Ang Univ.)

The deweyan dramatic rehearsal is examined by clarifying and detecting its meaning, its features, and its significance in thinking. Dewey refers to the practical thinking for making moral choices or decisions as a ‘moral deliberation,’ which indicates not the inner episode within a niche of the human mind, such as ‘introspection,’ but a way of conduct. This is because the deliberating persons may change the world by making choices, while affected by the deliberated contents or objects and transformed in themselves. Dewey calls such a moral deliberation the ‘dramatic rehearsal’ in that the possible courses of conduct be imaginatively experienced, and thus, dramatically rehearsed. The activity of thinking amounting to the practical conduct may render great service to finding the educational problems of critical thinking, and solving them. It will be tested how the deweyan dramatic rehearsal be utilized for the purposes of educational learning, theoretical development, and life management.

Key words: John Dewey, Dramatic rehearsal, Moral deliberation, Critical thinking, Moral conduct, Emotion

철학탐구 제55집

홍경남 E-mail: sensibilia@hanmail.net

투 고 일	2019.07.10
심 사 일	2019.08.02
게재확정	2019.08.13